

최소 집단 상황에서의 집단구분과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이 종 숙

덕성여대 심리학과

본 연구는 최소집단 상황에서 집단간 차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선적으로나 혹은 아주 사소한 기준에 의해서 집단으로 구분하면 피험자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행동하며 내집단을 선호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Tajfel의 사회정체감 가설에 의하면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은 피험자들이 자신을 자신이 속한 집단과 동일시하고 외집단과 비교하여 내집단이 더 우수하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려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집단구분을 하면 사람들은 집단간 차별을 하는가와 집단구분과 집단간 차별은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주며, 다양한 집단간 분배 유형은 자아존중감에서 다른가이다. 연구의 결과 사람들은 집단 구분을 하면 집단간 차별을 하며 집단구분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집단간 차별은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킨다. 그러나 집단간 차별 뿐만 아니라 공평한 분배도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은 자신과 남을 스스로 비교할 수 있다는 통제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선 배분에 의해서 집단을 나누는 최소집단 상황(minimal group situation)에서의 집단간 차별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인종차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과 관련된 맥락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의 집단간 차별현상에 대한 연구는 지역감정이나 지역간 편견이 사회, 정치적 문제로 거론되던 1988년 한국심리학회에서 개최한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지역감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발표됨으로써 관심이 모아졌었다(한국 심리학회, 1989). 집단간 차별현상의 실험패러다임인 최소 집단 상황에서 시행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단순히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 만으로도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선호해서 차별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

다(Billig & Tajfel, 1973; Brewer, 1979; Brown, Tajfel, & Turner, 1980; Locksley, Ortiz, & Hepburn, 1980; Tajfel, 1970; 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2; Turner, 1982).

이러한 집단간 차별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Tajfel (1981)의 사회정체감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Festinger의 사회비교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타인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가정한다. 사회정체감이론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나 능력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속집단의 지위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며 사람들은 무선적으로라도 집단으로 구분하면 자신과 소속집단을 동일시하며 집단의 지위를 통하여 자신의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그 결

과 내집단에게 더 많이 분배하려 하며 더 높이 평가하여 집단의 지위를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체감이론의 검증은 직접적으로 시도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만 Oakes와 Turner(1980)의 연구에서 시도되었는데 내집단 선호행동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고자하는 욕구에서 유발된 행동이므로 집단간 차별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을 화가에 대한 선호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의 피험자들은 집단 구분 후 분배행렬표를 사용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에게 점수를 분배하였으며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단순히 신문을 읽으면서 기다렸다. 그 후 실험, 통제집단 모두 자기평가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실험집단이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이 실험의 결과는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준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첫째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었는지 아니면 집단 구분만하고 신문을 읽었던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즉 집단 구분하기 전의 피험자들의 자아존중감이 측정되지 않았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과제가 달랐다는 점이다. 즉 실험집단은 양집단에 점수를 분배하는 중요한 과제를 한 반면 통제집단은 신문을 읽으면서 기다렸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분배하는 중요하고 책임을 느끼는 과제 수행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었을 수도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사회정체감 가설을 검증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단간 차별이 사회정체감 욕구에서 나왔다기 보다 집단간 차별의 결과 자아정체감이 높아졌으나 집단간 차별을 하게된 동기는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다. 예를들어 인지차별 가설(Wilder, 1986)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집단으로 구분하면 내집단은 더 개별화하고 외집단은 더 유사성을 가진 동질집단화하는 경향성 때문에 집단을 다르게 대하지만 일단 차별을 하고나면 자신이 한 행동의 합리화가 필요하여 정말로 자신의 집단이 더 우수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아울러 자신의 자아존중감도 높이려 할 수 있다.

Turner와 Spriggs(1982)도 집단간 차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쟁하라는 지시와 협동하라는 지시하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차별할 기회를 준 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집단들은 내집단 편들기를 하였으

며 경쟁하도록 한 집단이 협동하도록 한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이 연구에서도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을 높였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경쟁 지시문 자체가 집단간 차별도 일으키고 자아존중감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며 집단간 차별을 한 피험자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집단 구분을 하지 않고 개인별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반수는 자신과 그림의 선호가 같은 사람이고 또 다른 반수는 자기 자신과 그림의 선호가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분배하도록 하였을때 집단간 차별을 한 경우보다 더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즉 자신을 남과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를 내적인 것에 둘 수 있어서 통제감을 가지게 하며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Lemyre와 Smith(1985)도 집단간 차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이상의 두 연구에서 통제되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즉 집단으로의 구분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지 아니면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구분을 하지 않은 집단과 집단 구분을 한 후에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집단간 차별을 하여 점수분배를 하도록 한 집단과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의 점수 분배를 하도록 한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 구분 유무×집단간 차별 유무의 2요인 설계). 그 결과 집단 구분과 집단간 차별 행동간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즉 집단 구분을 하지 않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던 집단과 집단 구분을 한 후 집단간 차별을 하도록 한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집단 구분을 하지 않고 개인별 분배를 하였던 집단이나 집단 구분만 하고 집단간 차별을 하지 않았던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집단에게 다양한 점수 분배를 하도록 한 비교집단들(공평한 분배나, 내집단에게만 분배, 또는 외집단에게만 분배한 집단들)이 있었는데 집단간 차별을 하였던 집단은 이들 비교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었다기 보다 집단으로의 구분이나 점수분배 행위

가 자아존중감을 낮추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 구분을 하지 않고 점수분배를 했던 집단과 집단 구분만하고 집단간 차별 분배를 안했던 집단이 모두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제로 집단간 차별을 한 피험자가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집단간 차별 현상은 집단의 평균에 의해서 차별을 한 것으로 가정 한 것이지 실제로 피험자 개개인에는 집단간 차별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을 원상복구하는 정도로만 높이는 것같은 결과도 이 두 집단이 섞여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이 집단은 집단간 차별을 자발적으로 한 집단이므로 공평분배나 집단간차별분배를 강요해서 했던 집단과는 피험자들이 느끼는 통제감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가능성은 집단간 차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사회정체감 이론에 입각하여 해석 할 수 없게 하는 문제점이 된다. 아울러 집단간 구분을 하지 않고도 개인에게 점수를 분배하였던 행위가 왜 자아존중감을 낮추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불분명하다. Turner와 Spriggs의 연구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분배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준 반면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낮추었다.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아무런 근거없이 사람들에게 어떤 점수를 분배하는 것이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분배를 하도록 하기 전에 실험에 참여하여 어떤 활동도 하기 전에 점수를 분배하라는 요구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강한 부조리를 느끼게 했을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과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험에서 무엇인지 공헌하는 행위를 한 후 점수분배를 하도록 하여야 피험자들이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비교는 통제감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이 Lemyre와 Smith의 연구에서 분명히 밝히지 못한 집단 구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또 집단간 차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분배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통제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집단 구분을 한 후 집단간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내집단을 선호하는 점수 분배를 할 것이다.

가설2. 집단 구분과 점수의 분배는 자아존중감에 상호 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2A. 집단 구분을 한 경우, 집단간 차별분배를 한 집단이 집단간 차별 분배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2B. 집단 구분을 하지 않은 경우, 점수 분배를 하지 않은 집단이 점수 분배를 한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3. 점수의 분배유형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A. 공평분배를 한 집단들은 집단간 차별을 한 집단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다.

3B. 자발적 분배를 한 집단들은 강요된 분배를 한 집단들보다 통제감이 더 높으므로 자아존중감이 더 높을 것이다.

3C. 집단간 차별 분배를 한 집단들은 집단 구분만하고 분배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며 공평한 분배를 한 집단들은 집단 구분만하고 분배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다.

3D. 집단간 구분을 한 집단은 집단간 구분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이 연구의 피험자는 대학에서 심리학 개론과 정신위생을 수강하는 학부 1,2학년 여대생 1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에 참여하였던 3학년학생 18명은 심리학에 대한 정보나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다른 피험자들인 1,2학년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 자아존중감 점사의 신뢰도와 요인분석에만 포함되었고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

연구절차

본 실험의 설계는 가설 2를 검증하기위한 집단 구분×점수분배(2×2)의 2요인 설계상의 4집단과, 가설 3을 검증하기위하여 부가된 공평분배를 강요하는 집단과 집

단간 차별을 강요하는 집단의 6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6개의 집단중 1집단의 경우는 실제로 내집단 선호를 한 집단과 집단간 차별을 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1A집단과 1B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의 크기와 특징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집단번호와 집단의 사례수

	사례수	자료의 제시 순서			
		1	2	3	4
1집단	40	A	B	C1	D
2집단	26	A	B	D	C1
3집단	27	A	C2	D	B
4집단	19	D	A	B	C2
5집단	19	A	B	C3	D
6집단	21	A	B	C4	D

주 1: A 점의 개수 추정과제

B 과대평가자와 과소평가자로 집단 구분

C 점수 분배 행렬표(분배의 종류는 C1: 집단간 차별분배, C2: 개인에 대한 분배, C3: 공평을 강요한 분배, C4: 내집단 선호를 강요한 분배로 구분됨)

D 자아존중감 검사

주 2: 1집단은 내집단 선호를 보인 집단과 공평함을 선택한 집단으로 다시 분류하여 1A 집단과 1B 집단으로 구분함.

본 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은 자아존중감 검사를 점추정 과제보다 먼저 실시하여야 했던 제 4집단만 제외하고 6집단을 모두 동시에 실시하는 집단 실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은 강의가 끝난 후 실험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수강생이 모두 남아 있는 강의실에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두사람이 실시하였는데 실험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험자와 피험자의 간격을 넓게 떼어 놓았다. 1차 실험일에는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점의 개수 추정 과제가 실시되었는데 소책자에 7개의 점추정 과제가 제시되었다. 점추정 과제는 100-200개의 점이 그려진 문제를 제시하고 대략의 개수를 추정하도록 하였는데 제시하는데에 5초, 답을 기록하는데에 5초를 주어 거의 점의 개수를 정확히 추정

할 수 없게 하였다. 점추정과제의 결과는 실험자가 채점하여 다음 시간에 통보하여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실험자는 결과를 채점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과다추정자라고 알리는 통보문을 소책자 속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2차 실험은 그다음 강의가 끝난 후에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에게 작은 종이에 적힌 번호를 추천하도록 하고 그 번호가 자신이 이 실험에서 부여받은 번호이며 앞으로는 모든 학생을 이 번호를 사용하여 지칭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실제로는 모든 피험자가 똑같이 3번을 뽑도록 조작되었고 번호는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번호를 추천한 후 마치 그 번호를 보고 적는 것처럼 하면서 분배 행렬표의 과다추정자와 과소추정자의 번호란에 번호를 기입하였다. 다음에 각 피험자의 이름을 미리 적어놓았던 소책자를 분배하였다. 그 이후의 모든 지시는 이 소책자 안에 인쇄되어 있어 각 집단별로 자료의 제시 순서나 지시문을 다르게 조작할 수 있었다. 소책자에는 점추정 과제 결과와 통보문, 분배행렬표, 자아존중감 검사지, 실험의 조작에 대한 타당성 조사 설문(4문항)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점추정과제 결과는 전날 실시한 점추정 과제의 결과에 따라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고 설명하였고 7개의 과제중 실제로보다 더 많이 점이 있다고 추정한 문제의 수가 4이상이면 과다추정자라고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실제는 모든 피험자가 과다추정자로 지칭되었다).

소책자의 자료 제시순서는 위에 제시한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자아존중감 검사가 먼저 끝나는 집단도 실험의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모든 과제를 다 하도록 하였다. 소책자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하도록 강조하였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일체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은 개인적으로만 허용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연구의 성격을 설명해주고 연구결과가 나온후 연구와 관련된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 모임과 피험자들이 응답한 실험의 타당성 조사 설문지의 응답내용을 분석하면 피험자들은 시험의 조작 내용을 탐지하지 못하였고 실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검사지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 검사는 Battle(1981)이 개발한 SEI(Self-Esteem Inventories)를 번역한 것으로서 아동용과 성인용이 따로 있다. 이 성인용 SEI는 자기보고식 검사지로 40개의 문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피험자의 자신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관적 자아 감정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많은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었다(Battle, 1977, 1979, 1980). 이 검사는 일반 자아존중감 척도 1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 척도 8문항 개인적 자아존중감 척도 8문항 하위척도 8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170명의 사례를 기초로하여 주요인 분석한 결과 변량의 54%를 설명하는 고유가 1.50이상인 4 요인으로 나타났다. varimax회전방법에 의해 일반 자아존중감 척도, 사회적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적 자아존중감 척도, 하위척도를 추출하였다. 전체와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가 전체는 .82, 일반 .72, 사회 75, 개인 .70이었다. 요인분석시에 거의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응답을 한 문항 4개가 제외되어 문항의 수는 일반 7문항, 사회 13문항, 개인 8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위척도 8문항은 검사지에는 들어있으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모든 응답자가 하위척도에서 4점(반수) 이상을 받았으므로 응답에 성실하였던 것으로 간주되어 하위척도로 인해 제외된 사례는 없었다.

2) 분배 행렬표

분배행렬표는 Brown, Tajfel,과 Turner(1980)을 기초로 동일하게 제작하였으며 Lemyre와 Smith(1985), Turner, Brown,과 Tajfel(1979)의 연구에

서 사용한 것과도 동일하다. 예를들어 집단간 차별을 허용하는 MIP-MD 대 MJP의 점수를 산출하는 A종 행렬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실시증 준비표가 식으로 추천한 각 피험자의 고유번호를 배당하였는데 번호란에는 그 실험장소에 있는 다른 피험자들의 고유번호가 적히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번호란에 번호를 피험자들의 앞에서 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의 명단을 보면서 적어주었고, 각 피험자들에게 점수의 쌍을 선택하여 선택한 행의 알파벳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예문제를 통하여 자세히 피험자들에게 지시되어 한 사람도 지시사항을 잘못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렬표의 점수는 상금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1점당 200원이 상금으로 지불될 것이라고 하였고 각 학생의 점수는 이 실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 고유번호의 학생에게 준 점수들을 평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실제로 상금이 지불되는 것으로 보이도록 현금을 미리 준비하여 피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평한 분배를 강요한 집단(5집단)의 행렬표는 한 쌍의 점수가 언제나 똑같아서 a, b, c 등으로 선택할 수는 있으나 집단간 차별은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내집단 선호를 강요한 집단(6집단)의 분배행렬표는 각 선택지의 점수가 항상 내집단이 더 많도록 배열하였다. 개인별 분배(3집단과 4집단)의 경우 집단간 차별을 허용한 행렬표와 점수의 배열은 동일하나 번호의 앞에 과다추정자나 과소추정자라는 집단 명칭을 넣지 않았다.

이 분배행렬표들에서 피험자의 선택에 따라 집단간 차별 점수가 산출되게 되는데 그 종류는 MJP(최대 상호 이익) MIP(최대 내집단 이익), MD(최대 집단간 차별), F(공평)전략이 있을 수 있으며 점수는 각 행렬표의 종류별로 각각 산출된다. 각 전략별로 점수의 종류는 (1)MJP(MIP-MD에 대한) (2)MIP+MD

	a	b	c	d	e	f	g	h	i	j	k	l	m
과다추정자 번호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과소추정자 번호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선택_____													
	a	b	c	d	e	f	g	h	i	j	k	l	m
과소추정자 번호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과다추정자 번호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선택_____													

가	행열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과다추정자(내집단)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과소추정자(외집단)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점수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나	행열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과소추정자(외집단)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과다추정자(내집단)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점수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Turner 등과 Brown 등의 채점 방식을 참고)

(MJP에대한) (3) MD (MIP+MJP에대한) (4) MIP + MJP (MD에대한) (5) F (MIP+MD에 대한) (6) MIP+MD(F에 대한) (7) 차이빈도(전체 선택중 내집단을 선호한 선택에서 외집단을 선호한 선택의 수를 뺀 점수: 공평한 선택은 0으로 처리했음)가 있다. 점수화방법은 Turner 등(1979)과 Brown 등(1980)의 연구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하였다. 하나의 예를들면 다음에 예시한 행열표에서 가)의 행열표에서 k(*표로 표시)를 나)의 행열표에서 c를 선택했다면(과다추정자가 항상 내집단임) MIP+MD점수는 10(MJP, MIP, MD가 상반되는 상태에서 MJP를 희생해서 내집단을 선호한 정도)-2(MJP와 MIP+MD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MIP-MD를 선택한 정도)=8로 8점이 된다. 즉 나)의 행열표에서 선택한 점수에서 가)의 행열표에서 선택한 점수를 뺀 점수가 된다.

이러한 점수화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Aschenbrenner와 Schaefer, 1980 참조) 이 실험의 주목적이 집단간 차별 자체를 규명하기 보다는 집단간 차별의 동기나 결과에 대한 설명에 있기 때문에 이 행열표를 사용하였고 자유롭게 점수를 분배하는 방식은 공평한 분배나 내집단을 선호하는 선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부적절하였다.

결 과

집단간 차별에 대한 검증

본 실험에서 가설 1은 집단간 차별을 하도록 한 집단이 1집단이 내집단을 선호하여 내집단에 더 많은 돈을 분배하려 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집단1 전

체에 대하여 7가지의 다양한 내집단 선호 점수에 대하여 Hotellings의 T2 단일 표집 MANOVA검증하였다. 이 검증에서 사용한 7가지의 종속변인은 앞의 분배행열표에서 설명한대로 (1)MJP (2)MIP+MD(MJP에 대한) (3)MD (4)MIP+MJP(MD에 대한) (5)F (6)MIP+MD(F에 대한) (7)차이빈도였다. 결과는 Hotellings=1.055 $p<.000$ 이며 MIP+MD(MJP에 대한)의 $F=11.224$ 이며 $P<.001$ (평균은 .725), MIP-MD(F에 대한)의 $F=4.249$ 이며 $p<.043$ (평균은 .963), MD(MIP+MJP에대한)의 $F=4.616$ 이며 $p<.035$ (평균은 -.162), 차이빈도의 $F=39.169$, $p<.000$ (평균은 1.775)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집단은 확실히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한 집단내에서 이 집단의 전집 평균을 0으로 가정해서 집단의 평균이 0이 아니라는 검증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어 1집단과 3집단의 점수 분배의 행태가 다른지 분석하였다. 즉 3집단은 1집단과 점수의 배열은 동일하나 집단을 구분하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개인의 번호만 제시한 채로 분배하도록 하였으므로 만약 1집단의 점수 분배 유형이 행열표의 배열상의 문제로 앞서와 같은 집단간 차별이 나타났다면 1집단과 3집단의 비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MANOVA 검증 결과는 1 집단이 3 집단보다 두집단에 대한 분배에서 더 차별을 하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Hotellings value=.2058, $F(7, 58)=1.705$ $p<.126$). 그러나 단 일변인 F검증에서는 MJP에서 $F=3.670$, $p<.060$, MIP-MJP에서 $F=4.707$, $p<.034$, MD에서 $F=4.198$, $p<.045$ 인 것으로 나타나 집단의 명칭을 붙혔을 때의 선택이 더 내

집단에 유리하게 선택하는 것은 집단간 비교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으로는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험자들이 모두 집단간 차별을 의도적으로 한다는 증거는 뚜렷하게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많은 학생이 공평한 분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1 집단을 다시 집단간 차별을 한 1A집단과 집단간 차별을 하지 않고 공평했던 1B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 집단을 분류하였다. 1A집단은 분배행렬표의 선택빈도에서 집단간 차별 선택을 더 많이 한 집단이고 1B집단은 집단간 차별을 하도록 했지만 분배행동에서 공평함을 선택하였거나 외집단에 오히려 유리하게 선택을 더 많이 한 집단이다. 본 실험에서는 이렇게 두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1A집단이 21명 1B집단이 1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B집단 구성원의 대부분은 어떤 분배 행렬표에서도 집단간의 차별을 하지 않고 모두 공평한 분배를 택한 사람들이었다. 이 결과는 위의 통계적 검증에서는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균상으로 나타났지만 선택행동의 유형으로 살펴보면 집단간 차별전략을 선택하는 사람과 항상 공평전략을 선택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되며 집단간 차별을 하는 사람은 내집단 선호 혹은 외집단 선호등 상당히 선택의 다양성을 보이나 결국은 전체적인 면에서 내집단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하려고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2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구분 유무(2)×점수분배 유무(2)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A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의 자아존중감 점수 결과의 전체 점수에 대하여 2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집단 구분 유무×분배 유무의 상호작용이 $F=9.083$ ($df=1, 89$) $P<.003$ 로 유의하였다. 이 4 집단들과 집단간 분배의 유형이 달랐던 자발적 공평집단(1B), 강요된 공평집단(5), 강요된 차별집단(6)인 3 집단의 평균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점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에 의하면 집단 구분을 한 조건에서는 집단간 차별 분배를 한 집단이 유의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으며($F=7.819, df=1, 89, p<.05$) 집단 구분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분배를 하지 않은 집단이 분배를 한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간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차별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집단 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배를 하지 않는 것보다 분배를 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낮춘다. 그러나 집단 구분을 하고 차별을 한 집단이나 전혀 집단 구분조차 하지 않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고는 말할 수 없고 집단구분이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집단간 차별을 통하여 회복하는 것 같다.

다음에 자아존중감 점수를 3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 이들에 대한 2×2요인 설계의 MANOVA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집단구분×분배유무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Hotellings=.1268, F=3.676, df=3, 87, p<.008$). 이에 따른 단 일변인 변량분석에서 일반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개인적 자아존중감에서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자아존중감 $F=$

<표 2> 각 집단의 자아존중감 평균

집단명(집단 번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집단구분 유, 자발적 차별분배(1A)	21	17.191(5.193)
집단구분 유, 자발적 공평분배(1B)	19	16.316(5.078)
집단구분 유, 분배 무(2)	26	12.808(4.622)
집단구분 무, 분배 유(3)	27	15.111(5.886)
집단구분 무, 분배 무(4)	19	17.474(5.591)
집단구분 유, 강요된 공평분배(5)	19	19.474(4.659)
집단구분 유, 강요된 차별분배(6)	21	17.143(5.756)

3.590, $p < .061$; 사회적 자아존중감 $F = 5.876$, $p < .017$; 개인적 자아존중감 $F = 7.364$, $p < .008$). 각 하위 척도별 분석에서도 상호작용만이 유의하며 상호작용 패턴이 유사하여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발적 공평분배, 강요한 공평분배, 강요한 집단간 차별분배 조건을 위의 4집단에 덧붙여서 7개의 집단간 1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아개념 점수에 대하여 실시한 1요인 변량분석 결과는 $F = 3.602$, $p < .0023$ 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7개 집단의 사후검증은 너무나 많은 집단간 비교가 가능하여 Bonferroni 사전개별비교에 의해 가설에서 계획하였던 집단간 비교만 실시하였다. 즉 집단간 차별 분배와 공평분배를 비교하기 위하여 1A 집단과 6집단의 합과 1B 집단과 5집단의 합을 비교하였다. 또한 자발적 분배와 강요된 분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A집단, 1B집단의 합과 5집단, 6집단의 합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집단구분을 하고 어떤 분배도 하지 않은 채 곧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한 집단(2집단)과 다양한 분배유형집단(1A, 1B, 3, 5, 6 집단)을 비교하였고 집단구분도 않고 분배도 하지 않은 집단(4집단)과도 비교하였다. 비교의 수는 7개가 되었다. 이 7개의 개별비교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집단의 개별비교를 위한 Bonferroni 검증의 결과

비교	비교집단	tD 결과	
1.	1A+6과 1B+5	0.615	$p > .05$
2.	1A+1B과 5+6	1.316	$p > .05$
3.	2와 1A 집단	2.823	$p < .05$
4.	2와 1B 집단	2.654	$p > .05$
5.	2와 5집단	4.177	$p < .05$
6.	2와 6집단	2.801	$p < .05$
7.	2와 4집단	2.924	$p < .05$

df = 7, 145

이 결과에 의하면 가설 3A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집단간 차별이 공평한 분배보다 자아존중감을 높일리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비교 1). 또한 자발적 분배는 강요된 분배보다 더 통제감을 높여주므로 자아존중감을 높여 줄 것이라는 기대도 지지되지 않았다(비교 2). 오

히려 이들 4집단은 모두 자아존중감이 높아서 집단간 점수분배를 하면 어떤 형태의 분배를 하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 이는 가설 3C에서도 검증되는데 집단 구분만하고 어떤 분배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분배를 한 집단은 그것이 자발적 차별분배였든 발적 공평분배였든, 강요된 공평분배였든 자발적 공평분배였든 간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비교 3, 4, 5, 6). 그러나 가설 3C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또 가설 3D에서 가정 하였던 대로 집단구분을 하지 않고 분배도 하지 않은 집단(4)보다 집단구분만하고 분배를 하지 않은 집단(3)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즉 집단구분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 같다.

각 하위척도별 MANOVA검증에서도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Hotellings = .223, $F = 1.757$, $p < .028$). 그리고 각 단일변인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3개의 하위척도가 모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척도에서 나타난 집단간 차이에 대한 개별비교는 하지 않았다.

논 의

이 연구의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간 차별을 할 기회를 주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내집단에 유리하게 분배를 한다. 그러나 평균상으로 집단간 차별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의 반수의 사람들은 일관되게 공평한 분배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집단과 외집단의 점수가 동일한 선택지를 고른다. 그러므로 집단간 차별 연구에서 좀 더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점은 어떤 상황적 조건이나 개인적 조건이 사람들을 집단간 차별을 하게 만들며 또는 지속적으로 공평해지려고 노력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의 가설 2에서는 집단구분과 분배의 유무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을 예측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집단 구분을 한 후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반해 집단 구분을 하지 않고 점수를 분배하는 것은 자아개념을 낮게 한다. 이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분배의 유형은 자신과 관련된 비교 평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신이 관련되

지 않고 타인들 끼리만 비교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가설 3A와 가설 3B에 대해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공평한 분배를 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두 조건 간에는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발적 분배와 강요한 분배간에도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을 것을 예측하였는데 두 조건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가설 3의 C, D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집단 구분이 피험자의 자아존중감에 위협을 주고 그 이후의 집단을 의식한 어떤 분배행동도 이러한 위협받은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주는 것 같다. 그러므로 집단구분은 사람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추어 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분배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분배속에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평가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으며 평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일 때만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결과까지도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간 차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자아정체감 가설에 입각하여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게 한다. 왜냐하면 집단간 차별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집단간 비교 행동도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은, 우리는 집단으로 구분하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감을 느끼며 사회적 비교를 하려는 욕구를 느끼나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내가 나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통제력을 가졌다는 느낌이 자아존중감을 높인다고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 욕구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상황에서만 일어나며 이러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에게 어떤 점수 또는 돈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은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며 통제감을 가지게 하는 일은 못된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Lemyre와 Smith (1985)의 연구결과와 공평분배를 한 집단이 차별 분배를 한 집단과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이 다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측정된 자아존중감 척도가 달랐고 연구 절차에서도 Lemyre와 Smith의 연구는 무선적 집단 구분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점추정 결과에 의한 구분이었던 점이 달

랐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참 고 문 헌

- 유봉섭 (1987). 집단구분 기준이 내외집단 차이지각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숙 (1990). 최소 집단 구분 상황에서 연령, 성, 상황의 현실감이 집단간 차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대 논문집 제 18집.
- 최경규 (1981). 최소상호작용 조건에서 집단간 차별 행동.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심리학회 (1989). 심리학에서 본 지역 감정. 성원사.
- Aschenbrenner, K.M. and Schaefer, R.E. (1980). Minimal group situations: Comments on a mathematical model and on the research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389-398.
- Battle, J. (1981). Culture-Free SEI Self-Esteem Inventories for Children and Adults. Pro-ed, Austin, Texas.
- Battle, J. (1977).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Canadian self-esteem inventory for adults (form AD).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4, 38.
- Battle, J. (1979). Self-esteem of students in regular and special classes. *Psychological Reports*, 42, 212-214.
- Battle, J. (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1, 157-158.
- Billig, M. & Tajfel, H. (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7-52.
- Brewer, M.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 Brown, R., Tajfel, H., & Turner, J.C. (1980).

- Minimal group situations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Comments on the paper by Aschenbrenner and Schaefe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399-414.
- Lemyre, L. & Smith, P.M. (1985). Intergroup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3, 660-670.
- Locksley, A., Ortiz, V., & Hepburn, C.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discriminatory behavior: Extinguishing the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17-783.
- Oaks, P.J. & Turner, J.C.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Does the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make social identity more posi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95-301.
- Tajfel, H. (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a*, 223, 79-97.
- Tajfel, H. Billig, M.G., Bundy, R.P., & Flament, C. (1972).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149-178.
- Tajfel, H. (1981). Human group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Turner, J.C. (1982). Some Comments on "Measurement of social orientation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51-367.
- Turner, J.C., Brown, R.J., & Tajfel, H. (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tergroup favourit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 187-204.
- Turner, J.C., & Spriggs, D. (1982). Social categorization, intergroup behavior and self-esteem: A replication, Unpublished manuscript.
- Wilder, D.A. (1986). Social Categoriza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293-355.

The Effects of Social Categorization and Group Discrimination on Self-Esteem in the Minimal Group Situation

Jong-Soo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Duk Sung Women's University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group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n the minimal group situation. It has been demonstrated repeatedly that when subjects were merely categorized into groups and asked to distribute some values to others in the groups, they discriminated competitively in favor of their own group and strived for their own group's profit even though the criterion for the categorization was very trivial or random. Tajfel in the Social Identity Theory contends that the intergroup discrimination is a strategy for achieving self-esteem via social competition. When categorized, the subjects identify themselves with their own group, compare the ingroup with the outgroup and attempt to establish relative superior status of the ingroup to the outgroup. Thu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test hypotheses whether the categorization into groups makes subjects discriminate in favor of their own group, whether the categorization or the discrimination affects self-esteem, and whether various types of distributions, (either discriminatory or fair and either voluntary or forced) also affect self-esteem.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when categorized, subjects discriminated in intergroup distributions, and that categorization deteriorated self-esteem and discrimination increased the deteriorated self-esteem. In addition, all types of distributions, discriminatory as well as fair and voluntary as well as forced, increased self-esteem compared to the categorization without distribu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comparison and evaluation performed by oneself provides on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high self-esteem.